

우리가 되찾은 천재 화가, 변월룡



양지陽地의 소녀

1953

캔버스에 유채

47.5×29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우리가 되찾은 천재 화가, 변월룡

전시기간 : 2019년 4월 17일(수) - 5월 19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전관 (본관, 신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189점 (회화 64점, 판화 71점, 데생 54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년 4월 17일(수)부터 5월 19일(일)까지 **변월룡**(1916~1990, 러시아 연해주) 개인전 《우리가 되찾은 천재 화가, 변월룡》을 연다. 변월룡은 한국전쟁 이후 활동한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화가다. 한국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평생 한국식 이름을 고수했으며,¹ 작품에 한글 서명과 글귀를 적어 넣어 자긍심을 드러냈다. 사후 비석에도 한글 이름이 새겨졌다. 변월룡은 지난 2016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이 개최한 대규모 회고전²을 계기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20세기 한국 현대미술사의 사각지대에 이처럼 훌륭한 재외 동포 화가가 있었다는 것은 정녕 기쁨”이라며 격찬했고, 고은 시인이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변월룡의 개인전을 상업 화랑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미술시장에 변월룡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소개하고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변월룡이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제작한 작품 189점을 학고재 전관에서 선보인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 25년간 변월룡 연구에 전념해온 문영대 미술평론가가 전시 기획을 총괄하고 서문을 쓴다. 문영대 미술평론가는 변월룡이 “통일 한국 미술사에서 남과 북을 잇는 연결 고리 구실을 할 작가”라고 강조해왔다.

¹ ‘뵘 바를렌(Pen Varlen)’은 ‘변월룡’의 러시아식 발음 표기다.

²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 [변월룡 1916-199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016.3.3.~5.8.

《고국의 품에 안긴 거장, 변월룡》, 제주도립미술관, 2016.8.5.~10.30.

2. 전시 주제

잊혀진 거장, 변월룡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

분단의 비극이 낳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한국 미술사에서 지워진 비운의 이름이 있다. 평생 한국식 이름을 고수하고 조국을 그리워했으나 끝내 환영받지 못한 채 잊혀진 화가, 변월룡이다. 변월룡은 6.25전쟁 이후 고국의 모습을 기록화로 남겼으며, 특히 북한 미술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폐허와 다름없던 평양미술대학의 학장 및 고문으로 파견되어 교육 체계를 바로잡는 데 힘쓰는 한편, 당대 주요 화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사실주의 미술의 탄탄한 기초를 전수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했고, 남한에는 최근까지 변월룡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어 그동안 충분한 조명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월룡은 한국 구상미술 역사의 공백을 메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양화의 기초와 표현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지닌 화가로, 전후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맥락을 강화할 주요 인물이다. 특히 한국인 화가가 일본과 서구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서양화를 배워 한국에 유입했다는 점은 연구의 폭을 확장할 계기를 마련한다. 변월룡이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을 다수 남긴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변월룡은 러시아의 당대 주요 인사들은 물론, 한국 위인들의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를 비롯하여 화가 배운성, 문학수, 정관철, 1950년대 이후 우리 역사에서 홀연히 사라진 근원(近園) 김용준, 민촌(民村) 이기영 등 수많은 월북화가와 문인들이 변월룡의 화폭에서 되살아난다.

변월룡의 삶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연대기적 전시

변월룡의 삶과 작품 인생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구성했다. 본관 입구에서는 1940년대의 초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시장 중앙에 <무용가 최승희의 초상>(1954)이 보인다. 이 벽을 중심으로 우측 벽에는 1950년대 북한 파견 기간에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인 소녀의 모습을 정답게 묘사한 <양지(陽地)의 소녀>(1953)를 비롯해, 고려 시대 정몽준이 피살된 장소로 알려진 <개성 선죽교>(1953), 전후 평양의 재건 현장을 가늠할 수 있는 <평양의 누각>(1954) 등 다양한 풍경화도 살펴볼 수 있다. 중앙 벽 뒤편에는 변월룡과 친밀하게 교류한 화가 문학수, 정관철, 배운성, 문화가 근원 김용준, 민촌 이기영 등의 초상을 모아 전시한다.

본관 가장 안쪽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1960년대와 70년대의 작품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동선에 따라 움직이면, 러시아에 돌아온 이후 조국을 그리워하며 제작한 1960년대 동판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중앙에는 <자화상>(1963)을 걸었다. 변월룡이 유화로 그린 유일한

자화상이다. 바로 왼편에 걸린 대형 회화 <사회주의 노동영웅 어부 한슈라(A.S. 한)>(1969)를 기점으로 좌측에는 주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국에의 복귀가 끝내 무산되자 좌절을 딛고 일상 속에서 자아를 찾으려 노력한 시기다. 여행을 통해 풍경화를 다수 남겼으며, 버드나무와 꽃사슴 등을 소재로 즐겨 썼다. 문영대 평론가는 변월룡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심정을 구체적인 사물로 가시화시킨 것이 버드나무"이며, "자신의 심경을 (꽃사슴의) 긴 모가지에 이입시켜 접경 너머의 고국으로 향하고픈 시선"을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안쪽 방에서 돌아 나와 중앙 전시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 우측 벽에서 1980년대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삶의 황혼기, 60대 후반에 접어든 시기다. 변월룡이 4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린 <어머니>(1985)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관에서는 변월룡이 다양한 시기에 제작한 초상화와 데생, 판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신관 1층에서는 러시아 당대의 화가들과 조각가,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 화부 등 다양한 인물의 초상을 만나볼 수 있다. 탁월한 표현과 구도가 돋보이는 수작들이다. 지하 1층에서는 주로 동판화와 석판화 작품을 선보인다. 변월룡은 회화를 전공했으나 판화에도 애착을 가지고 매진했다. 특히 동판화 기술이 매우 뛰어나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³ 교수들이 "변월룡의 판화 기술이 렘브란트를 뛰어넘는 듯하다"고 평했다고 한다. 신관 지하 2층에서는 목탄, 연필 등으로 그린 데생 작품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탄탄한 소묘력이 기초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양지陽地의 소녀

1953

캔버스에 유채

47.5×29cm

<양지陽地의 소녀>(1953)는 변월룡이 북한에 머물기 시작한 첫해에 그린 유화다. 소품이지만 탁월한 색감과 안정적인 구도로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는 힘을 지닌 그림이다. 붉은색 저고리를 입고 햇볕 따듯한 양지에 앉은 한국인 소녀의 모습을 정성스런 필치로 묘사했다. 순수하게 웃음 짓는 표정과 편안한 동세에서 대상에 대한 호의와 애정이 드러난다.

소녀의 형상이 왼쪽으로 살짝 비껴 앉음에 따라, 배경의 우측 상단부터 중앙까지 기와지붕을 엮은 집의 모퉁이를 배치하여 구도적 안정감을 이끌어낸다. 지붕 아래에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³ Ilya Repin St. Petersburg State Academic Institute for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희미하게 그려 넣었다. 주변 풍경을 함께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낸 점이 돋보인다. 배경 좌측 상단에는 한옥 격자살문의 형태가 어렴풋이 나타난다. 당시 북한의 복식과 주거 형태, 거리의 풍경 등을 유추해볼 수 있어 흥미로운 작품이다.



어머니

1985

캔버스에 유채

119.5×72cm

〈어머니〉(1985)는 변월룡이 1945년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린 유화다. 우측 하단에 한글로 '어머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적은 것이라고 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표정이 따사롭고 평온하다. 배경색을 차분하게 처리해 흰 저고리와 얼굴, 하얗게 센 머리가 더욱 돋보인다. 구부정한 어깨를 지탱하듯 포개 모은 손과 다문 입술에서 곳곳한 인품이 엿보인다. 배경 우측 하단에 그려 넣은 암갈색 장독이 한국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낸다.

농부였던 변월룡의 아버지는 변월룡이 태어나기 전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 연로한 몸으로나마 농사를 거들던 조부마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홀몸으로 세 남매를 키워내고자 모진 세상의 풍파를 견뎠다. 외동아들이었던 변월룡은 학업 등의 이유로 어머니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느라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겼다.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린 1985년, 변월룡은 건강 문제로 35년간 몸담은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의 교직에서 물러났다. 투병 중에는 유년의 기억과 고국의 자연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그렸다.



바람

1959

동판화

40×63.8cm

변월룡은 생전 렘브란트를 가장 존경하는 화가로 꼽았다. 특히 동판화에서 렘브란트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바람〉(1959)의 하늘 공간에 사선으로 그은 선은 렘브란트 판화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구도의 균형이나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넣은 조형 요소다. 〈바람〉은 들판의 버드나무가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역동적인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한 수작이다. 변월룡은 1958년과 59년에 다수의 판화를 제작했다. 주로 북한에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국의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서 만들었으나 결국 무산되어 러시아에 남겨졌다.

4. 작가 소개

러시아 동포 3세인 변월룡은 한국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농업 유민이었던 변월룡의 조부는 귀화를 거부하고 한국식 이름과 전통을 고수하는 '여호(餘戶)'로 살기를 고집했다. 변월룡은 191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일찍이 미술에 재능을 보인 변월룡은 고려인 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발판으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미술학교⁴에서 수학했다. 18세 되던 해인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자행했다. 스베르들롭스크에 머물던 변월룡은 가까스로 이주를 면했으나 가족들 및 고향의 한인들과 약 3년간 상봉하지 못했다. 연해주 유지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지원하기로 했던 재정적 도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타향에서 혈혈단신이 된 변월룡은 소수민족으로서의 괘시와 차별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남들보다 출중한 실력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임을 깨닫고 일과 공부에 끈질기게 매진했다. 노력의 결과는 정비례하여 나타났다.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하기도 했으나 강인한 의지와 집요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1940년, 변월룡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러시아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예술아카데미(현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에 진학했다. 담당 교수가 사비를 털어 보낸 유학이었다. 1947년도, 변월룡은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 졸업 작품으로 <조선의 어부들> (1947)을 제출하여 수석으로 졸업했다. 1951년도에는 동 대학원에서 소련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같은 해 건축 예술부 데생과 조교수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교수 활동을 시작했다. 1953년에 부교수로 승진하면서 북한 교육성 고문관으로 파견되었다. 변월룡은 평양미술대학의 고문 겸 학장으로 재직하며 교육 체계를 바로잡고 학생과 교수들을 지도 및 육성했다. 이듬해 러시아로 돌아가 복직한 이후, 고국으로의 복귀를 평생 희망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1977년도에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 정교수로 승진, 1985년에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접고 퇴직했다. 1990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변월룡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끊임없이 피력했다. 일생 동안 한국 이름을 고수했고 작품에 한글 서명을 남겼으며, 세상을 떠난 뒤 무덤 비석에도 한글로 이름을 새겼다. 사후 미국 플로리다 히벨 미술관의 전시 《골든 브리지 *Golden Bridge*》(1990)에 작품을 출품했다. 서구에 최초로 작품을 선보인 기록이다. 지난 2016년, 변월룡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 제주도립미술관(제주)에서 연이어 회고전을 개최했다. 변월룡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전시로 미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립러시아미술관(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⁴ Sverdlovsk Art College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변월룡 화백과 문영대의 가상 대담

문영대 | 미술평론가



레핀미술대학 졸업작품 심사 장면 (1947).



그림 1.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최된 변월룡의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展 (2016.3.3.~5.8.) 입구 모습.



그림 2. 변월룡이 공부하고 재직한 26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레핀 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



그림 3. 대학 졸업 작품 심사를 위해 심사대로 변월룡이 작품을 옮기고 있는 장면.

“변월룡 화백께서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어언 30 여 년, 이번 학교재 전시회를 기회로 그분의 삶과 예술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코자 가상 대담을 시도했습니다.”

필자 - 변 화백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가 1994 년경이었으니까 어느새 올해로 사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선생님을 고국에 알리는데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월룡 - 무슨 말씀이요. 3 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나의 탄생 100 주년을 맞이하여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展(2016)을 열게끔 해주신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요? 아마 당신이 없었다면 고국에서 그런 과분하고 영광스런 전시회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이요. 이제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고마워해야지요.

필자 - 웬 별말씀이요.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 나누기로 하고 저는 선생님의 자제분인 아들 세르게이와 딸 올가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다 보니 지금은 거의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막내딸보다 나이가 어린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월룡 - 한국어로 편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데다가 언어도 습관인지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리다. 아무튼 나의 자식들과 친형제처럼 지낸다니 들던 중 반갑구려.

필자 - 선생님께서는 레핀 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이하 레핀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레핀 장학금을 받다가 졸업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1 등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을 목에 거신 것만으로도 소수민족인 고려인 사회에 큰 자부심과 긍지, 나아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레핀미술대학은 1757 년에 설립되어 260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최고·최대의 미술대학이지요. 더욱이 당시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 시절이라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15 개 공화국의 내로라하는 화가 지망생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렸으니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서 소수민족인 동양인이 당당히 1 등으로 졸업하셨으니 당시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같은 한민족의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변월룡 - 허허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웬지 자화자찬 같아 민망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으니 빨리 화제를 돌립시다.

필자 -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Anton Pavlovich Chekhov)이 워낙 겸허한 사람이라 축하나 칭찬의 말을 싫어하거나 어색해했다더니 선생님이 딱 그 짝이네요. 선생님,

이왕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이었으면 싶습니다.

변월룡 -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그림 4. 대학원 졸업 기념사진으로 추정.

필자 - 선생님의 학창시절 전공은 회화과, 그러니까 유화가 전공인데 회화과의 많은 학업량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래픽과 야간 수업까지 청강하며 판화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3 학년 때부터는 아카데미 출판국으로부터 판화 주문까지 받기에 이르고, 이후 그래픽은 회화와 함께 떼려야 뗄 수 없는 창작적 관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그래픽과에서 주로 다루는 판화에까지 열의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변월룡 - 렘브란트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 학창시절 나는 렘브란트의 작품에 심취하여 틈만 나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들러 렘브란트의 작품을 연구하곤 했었지.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당시 나에게 일종의 롤모델이었던 셈이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렘브란트의 동판화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접근하다 보니 회화에서 느낄 수 없는 맛과 분위기에 빠져들어 장르를 확장하게 되었다네.

필자 - 이에 대해서는 딸 올가도 똑같이 말하더군요. 제가 올가에게 아버지는 화가 중 누구를 가장 존경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단번에, "렘브란트입니다. 좋아하는 다른 화가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렘브란트를 최고로 좋아하셨어요. 특히 렘브란트의 동판화를 좋아하셨죠. 아버지의 동판화를 보시면 그 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암스테르담에 가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충동에 이끌려 렘브란트가 찍었던 인쇄기로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라며 아버지에게서 그때의 흥분을 여러 번 들었다더군요.

변월룡 -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아들이나 딸에게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롤모델을 가질 것과 또 그 롤모델을 존중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쳤으니까, 아마 나도 모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의 롤모델인 렘브란트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구려.

필자 - 네,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하기로 선생님은 대학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역세계 운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월룡 -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필자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스베르들로프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 덕택이었고, 유학을 떠나자마자 붙어닥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베르들로프스크 미술대학 지도 담당 교수와의 만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선생님을 레핀미술대학으로 보냈잖습니까. 세 번째는 레핀미술대학 입학과 동시에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평생의 동반자 프라스코비아 제르비조바(1920-2005)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다음으로는 수석 졸업 작품인 <조선의 어부들>(1947)을 통해 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진학 권유를 받아 결국 교수까지 오르셨으니, 역세계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대학원 진학은 운 이라기보다는 실력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변월룡 - 이렇게 정리를 하니 또 그렇게 보이는군. 그런데 문 군이 중요한 '고국 방문'을 빠트린 것 같네. 나에게 있어 고국 방문이야말로 천운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 아, 그리고 문 군이 스베르들로프스크 미술대학 시절 나의 지도 교수님을 언급했는데, 정말 그분은 인품이 남달랐네. 나는 당시 그분을 통해 인간의 참 사랑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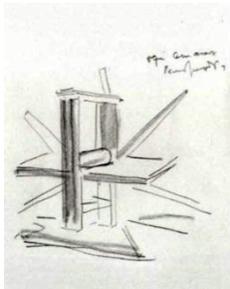


그림 5. <렘브란트의 동판화 인쇄기>, 1961, 종이에 연필, 28.5x21.5cm

나에게는 정말 은인이자 잊을 수 없는 분이었던네. 아마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화가 변월룡은 없었을 거네.

고국 방문, 꿈이 현실이 되다 - 꿈에만 그리던 고국 땅을 드디어 밟다



그림 6. 레핀미술대학 로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변월룡.

필자 - 이쯤에서 화제를 고국 방문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1951년에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건축예술부 데생과(科) 조교수가 되었고, 2년 후인 1953년에 부교수로 승진하자마자 고국방문 기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국으로 파견을 가시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변월룡 - 사실 당시에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가 않았다네. 1953년 4월 어느 날, 느닷없이 소련 당국으로부터 "소·조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당신을 북한으로 파견키로 하였으니 출국 준비를 하라"는 짧은 북한 파견명령서가 배달되었다네.

필자 - 4월이면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의문 속에 사망한 지 거의 한 달 남짓 밖에 안 되었을 때군요.

변월룡 - 스탈린이 3월 5일에 사망했으니 그랬지. 그래서인지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이 안 되고 좀 어수선한 편이었지. 그래서 나는 파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이나 지침 없이 떠났다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자세히 알아내려고 하지를 않았다네. 공연히 자세한 내용을 캐묻다가 자칫 파견 변경 또는 지연이 될까 봐 우려스러웠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사실 파견 영문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학년말을 마무리 짓고는 곧장 떠났다네.

필자 - 그러니까 천우신조의 기회를 괜히 굶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로군요. 그럼 평양미술대학 재직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었군요?

변월룡 - 물론이지. 나는 당연히 방학을 이용한 파견으로 알고 준비도 그림 그릴 도구와 재료만 챙겼다네. 흔히 출장을 그런 식으로 다녔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나를 초청한 거였더군. 그러나 초청 내막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탓에 나는 전혀 알지를 못했네. 두 달 정도 지나 파견 마무리를 할 시점이 다가오자 나는 그동안 사귀 지인들에게 틈틈이 미리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등 나를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미술대학 발령' 통보가 오는 거야. 직책명은 '평양미술대학 고문 겸 학장'이었다네. 전혀 예상 못 한 통보라 어안이 병병하더군. 그리고는 얼마나 기뻐던지 옆에 있던 동갑내기 절친 문학수와 정관철에게 꿈인지 생시인지 나를 꼬집어보라고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네.

필자 -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두 달 동안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평양미술대학을 맡길 적절한 인물인지 아닌지 암암리에 평가했던 거네요?

변월룡 - 그런 셈이지. 일종의 두 달 동안 검증 과정을 거친 거지. 하긴 나에 대한 정보만으로 덜컥 평양미술대학을 맡길 수만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나를 초청한 후 일거수일투족, 즉 교육자로서, 화가로서의 자질을 살핀 다음 적합 인물로 판단되면 평양미술대학으로 초빙할 요량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아무래도 국가 간의 신뢰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야.

필자 - 하긴 그렇죠. 선생님의 국적이 러시아니까 외국인을 임명한 후, 마음에 들지



그림 7. <평양 대동문>, 1953, 캔버스에 유채, 29x47cm



그림 8. 북한 체류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



그림 9. 2005년 8월, 정상진 선생님과 인터뷰 모습.



그림 10. 2005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광복 60주년 기념 한국미술 100년》展에 출품된 변월룡의 작품 앞에서.



그림 11. 송정리 시절의 평양미술대학 야외 모델수업.



그림 12. 송정리 시절의 평양미술대학 실내 모델수업.



그림 13. 송정리 시절 평양미술대학 교수들과 함께.

않는다고 반복하는 것이 사실 그리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별로 나오면 파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돌려보내면 되었고, 합당한 인물로 여겨지면 그때 다시 소련 당국에 파견 변경 요청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파견 영문을 잘 모른 채 출국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떻게 선생님을 알고 지목하게 되었을까요? 소련에 경험 많고 유능한 화가들이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변월룡 - 그러게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추측건대 나의 죽마고우 정상진[북한 문화선전성 제 1 부상(차관에 해당)]의 추천과 레핀미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북한 유학생들의 추천이 고국방문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

여기서 잠깐 정상진에 대해 부연하면, “나는 처음에 정률(鄭律)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 정상진인지 정말 몰랐다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는 대뜸 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상진과 참 많이 닮았다 했지. 자초지종을 들으니 북한으로 파견된 고려인들은 대부분 소련 정보처의 지시에 따라 변명(變名)을 했다더군.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아무튼 상진이 정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놈에게 신세도 갚을 겸 해서 초상화를 그려주려고 몇 번이나 찾아갔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그려주질 못했다고요.”

필자 - 제가 변월룡 화백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카자흐스탄에 계시던 정상진 선생님을 한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5년 8월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 초상화를 못 그린 걸 엄청 후회하시더군요. 그때는 괜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다면서.....

변월룡 - 그땐 그놈이 높은 직책에 앉았다고 좀 으쓱했지. 나의 진심 어린 성의를 몰라보고 말이야.

필자 - 하하하. 재밌습니다. 그땐 정상진 선생님께서 미래의 거장을 몰라보신 거군요. [주: 정상진은 소련군 해병대 장교로 '청진 상륙 작전'에 참전하면서 북한에 머물게 되었다. 북한 문화선전성 제 1 부상이란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최승희, 홍명희 등을 비호했다는 이유로 숙청, 1957년 소련으로 돌아가 중앙아시아 레닌기치(고려일보) 편집부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2013년 6월 15일, 95세의 노환으로 작고하였다.] 그 외 북한 당국이 선생님께 학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긴 데는 한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한글을 잘 알아 대인관계가 원만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선생님을 안성맞춤으로 여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월룡 -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지?

필자 - 평양미술대학 직책 수행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평양미술대학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인 것 같은데 3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까?

변월룡 - 당시 북한의 실정이나 상황으로 보면 충분할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평양미술대학은 전쟁 중에 평안북도 피현군 송정리로 옮겨가 있었는데,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옛날 집을 임시 교실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실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나 역시 이렇게 될지 전혀 짐작을 못하고 왔기에 교육에 관련한 아무런 준비물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지.

필자 - 제가 생각해도 참 암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강의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막중한 임무를 떠안으셨으니.....

변월룡 - 문제는 그런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네. 나 역시도 학창시절에

독·소전쟁으로 인해 대학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피난을 가 몇 년을 지낸 경험이 있어 그런 환경에는 익숙해 있었다네. 단지 좀 불편할 뿐이었지.

필자 -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지요?

변월룡 -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내실에 있었다네. 평양미술대학은 명색만 대학일 뿐 사실은 대학이라 할 수가 없었어. 대학에는 단 한 권의 미술교재조차 없었고, 또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은 내용이 부실하여 완전히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었다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점은 대학교수진에 있었다네. 교수 배치는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었던 데다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무능은 큰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네.

필자 - 한마디로 대학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군요.

변월룡 - 거의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네. 그중에 교수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시급했다네. 그러니까 잘못된 교수 배치는 바로잡으면 되었지만, 교수들의 수준 향상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지. 그래서 나의 임무 중 최우선적인 당면 과제로 삼은 것이 '교수들의 기량과 수준 향상'이었다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양미술대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나의 판단이었다오.

필자 - 네,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시 교수들은 거의 다 식민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공부 기간은 사실상 너무 짧았죠. 선생님만 보더라도 12년 이상 학창시절을 보낸 후에 교수가 된 것에 비해 그들은 고작 3~4년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으니, 각자 기초 미술 부재가 늘 아쉬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일본 현지에서 강사 경험조차 전무해서 미술이 학문으로 연구된 적도 없었으니까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 때 배운 수준 그대로 대학생을 가르친 격이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시 교수들을 지도·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차피 선생님은 3년 후면 고국을 떠나셔야 했기에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겠지요. 결국은 남은 자가 미래의 평양미술대학을 책임지고 이끌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변월룡 - 바로 그거였네.

필자 - 그래서 결점 사항을 다 수행하셨습니다까?

변월룡 - 교수들의 수준 향상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방향은 잡았다고 봐. 그 외는 어느 정도 수행하지 않았나 싶어. 이를테면, 잘못된 교수 배치를 새로이 배정했고, 기존의 교과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했으며, 미술교재는 손수 만들었지. 미술교재는 책에 실을 그림이나 참고할 글조차 없어 순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만들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을 교재 제작에 투입해야 했다네. 다음으로는 없던 동양화 학과를 복한 당국에 그 학과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해서 새로 개설했다네. 그때 유명한 동양화가인 청계(靑谿) 정중여를 교수로 끌어들이었지. 참 재능이 탁월한 화가였다네.

필자 -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했으니 교수들에게 선생님은 경외의 대상이셨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언제 그림을 그리셨는지요. 짧은 기간에 고국에서 그린 그림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변월룡 - 대부분 교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린 그림들이라고. 일종의 야외 수업인 셈이지.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시각예술인 그림이야 말로 직접 그리는



그림 14. <국화를 그리는 정중여>, 1954, 종이에 연필, 35x20cm



그림 15. 청계 정중여 作. 변월룡의 이름 월룡(月龍)에 빗대어 이미지화한 그림. 글씨는 '위 변월룡 선생 1954년 1월 정중여'라고 쓰여 있다.



그림 16. <북조선 풍경 (압록강 부근 백마산성)>, 1953, 캔버스에 유채, 70x56cm.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산성의 내성(內城) 남문..



그림 17. <화가 문학수>, 1954,
종이에 콩테, 30.5x19cm



그림 18. <화가 정관철
(미술가동맹 대표)>, 1954,
종이에 먹, 펜, 28.6x20cm



그림 19. <한설야의 초상>,
1953, 종이에 연필, 콩테. 이
작품은 사진 자료만 남아 있어
크기를 모름.



그림 20. <판문점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 1953, 캔버스에
유채, 51x71cm



그림 21. 김관호 작 <해질녘>,
1916, 캔버스에 유채,
127.5x127.5cm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공부가 되기 때문이지. 교수들이 나의 그림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교수들이 그린 그림을 놓고 즉석에서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비교 품평하니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필자 - 앞에서 잠깐 언급된 "절친 문학수와 정관철에게 꿈인지 생시인지 나를 꼬집어봐라"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과 동갑내기인 문학수와 정관철이 삼총사로 불리며 특히 각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태어난 월까지 따져(문학수 5 월생, 변월룡 9 월생, 정관철 11 월생) 형, 아우로 칭할 정도였다고요? 그러면 문학수와 정관철은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또 두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신다면?

변월룡 - 두 사람 다 내가 고국에 머물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들이네. 말이 문학수 교수는 나와 같이 평양미술대학에 근무했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림자처럼 동행해준 사람이고, 막내 정관철은 북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으로 북한 미술계 최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지. 두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 문학수는 황소같이 우직하면서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반면에, 정관철은 유연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할까?

필자 -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문학수는 교수답고, 정관철은 행정가답다고 느껴지네요. 선생님의 작품 <판문점 휴전회담장>(1953)과 <판문점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1953) 등 판문점 시리즈를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정관철 위원장이 북한 당국에 힘을 써 판문점 출입 허가를 받아냈다고요?

변월룡 - 맞아요. 정관철과 한설야(1900-1976. 소설가, 문학평론가. 조선문학가총동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의 도움이 컸다네. 내가 정관철에게 판문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정관철은 혼자 힘으로 벽찬지 한설야 선생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심하여 마침내 다녀올 수 있었다네. 한설야 선생님은 본인의 자동차까지 제공해주더군. 고맙게도.

필자 - 네, 그러셨군요. 그 밖에 선생님께서는 당시 절필해있던 화가들에게 예술혼을 깨워 붓을 들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김관호(1890-1959) 화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 강점기 때 고희동(1886-1965)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화 도입기의 선구자였는데, 특히 김관호는 1916년에 동경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성 주최 문전(文展)에 <해질녘>을 출품, 특선을 해서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그 기쁨을 일간지 매일신보에 "김관호의 누드화가 일본 문부성에서 주최하는 제 10 회 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 조선인을 대표하여 조선인의 미술 천재성을 세계에 표하였음을 다사(多謝) 하노라"라며 흥분된 마음으로 문전 관람기를 올리기도 했었죠. 김관호는 귀국 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과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으나 1927년 무렵부터 절필한 것으로 압니다. 그랬던 그분이 사반세기가 지난 1954년부터 조선미술가동맹에 가입하여 다시 붓을 잡았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자초지종이 궁금합니다.

변월룡 -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오고 나서 화단 열기가 전에 없이 활기차고 신바람이 났다고들 말하더군. 그래서 예전에 활동을 접었다가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 한다면 소개받은 이도 제법 있었지. 김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림 22. 변월룡 내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름. 건강이 회복되자 변월룡은 아내의 고향에 여행을 시켜주고 있다.



그림 23. 1954년 8월 19일, 양시역에서 러시아로의 환송 모습. 양시역은 평안북도 용천군 양시에 위치해 있다.

유명한 원로 화가여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새해 어느 날, 문학수와 정관철이 그분께 인사하러 가지기에 갔다가 후배들을 위해 다시 붓을 들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설득했다네. 좀 겸연쩍어 하시면서 싫어하지는 않더군.

필자 - 당시 북한 화단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고 컸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파견 기간 3년은커녕 반도 못 채우고 귀국하셨잖아요.

변월룡 - 그랬지. 급성 이질로 사경을 헤맬 때 집사람이 간호하러 오는 바람에 함께 귀국하고 말았다네.

필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변월룡 - 나의 고국 생활이 호사다마였던지 7월 초순경, 나는 급성 이질로 몸져눕고 말았다네. 약을 복용해도 낫기는커녕 증세가 더욱 심해지더군. 급기야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이 급히 소련에 연락을 취해 집사람이 달려왔지. 그리곤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와 보살핌 덕분인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갔네. 그녀는 오랫동안 북한에서 머물 수가 없었다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 때문이었지. 내가 미술대학에 필요한 자료와 그림에 필요한 재료 목록을 적은 메모를 아내에게 건네자 아내는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더군. 나는 고국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많으며 거부했지. 그러다보니 부부 간의 트러블이 좀 있었지. 이럴 경우 아내를 이기는 간 큰 남편은 없잖은가. 나도 아내의 눈물어린 애원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네.

필자 - 하하하. 맞아요. 아내를 이기는 간 큰 남편은 드물죠.

변월룡 - 그렇다고 나의 소신이 꺾인 것은 아니라네. 타협점을 찾은 것이지. 즉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두 달 뒤 다시 돌아온다는 조건이었다네. 사실 당시 나는 미술교재를 비롯하여 수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절실했다네. 내가 만든 미술교재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일 뿐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져올 참고 자료들이 너무나 많았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과 재료들도 소진돼 챙겨야 했으며, 오랫동안 못 본 자식들 또한 눈에서 아른거리기도 합디다.

필자 -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선생님의 부인도 화가여서 예전에 제가 사모님께 당시 북한 미술이 어떠하더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더군요.

“당시 북한의 미술은 기초가 너무 잡혀있지 않았습디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콤포지션(구도)의 개념은 너무 얕았고, 색채의 사용은 선택적이지 못했고, 게다가 데생까지 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림이 어렵게 여겨질 수밖에요. 남편은 그 정도가 그나마 많이 좋아진 것이라더군요. 색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노동자가 페인트칠하듯이 칠하는 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내가 보기에 당시 그들은 한참 더 연구하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변월룡 - 하긴, 내 아내도 화가이고 북한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나름 느꼈으리라 보네.

필자 - 아내와 함께 소련으로 귀국할 때, 양시역에 너무 많은 환송객들이 모여들어 기차 출발이 2 분간 지연되었다면서요? 사모님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들려주셨습니다.

아내가 광의장에서 선생님과 사모님이 피아실하며
편지 쓰면서 몇장 읽어주셨다. 그리고 양시역기차
까지도 올랐네 (북한을 위해서) 백화점도 고향산 주유
라고 읽었다
미술사학자 박찬 김주경 2019년 4월 23일

그림 24. 김주경의 편지.

1954년 9월 28일.

선생님께서 귀국을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신을 다시 한번 보았고, 그날의 일화도
도 정답에 남음이 없다고 보았더니 다시
요시지 못하고, 그대로 인사행운 동화까지
되어, 당시의 국정물에서, 필경사들은
들에게서 완전히 작별하고, 돌아올 때 나는
최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
는거라, 광범한 것을 느끼면서 귀국을 준비
모든 도라 선택하다.

그림 25. 배운성의 편지.

1955년 5월 30일.

“지금도 그 날만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날은 참으로 많은 인사들이 환송을 나와 주었습니다. 플랫폼이 사람들로 꽉 메워졌죠.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거기에는 화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과 문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배웅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선물과 꽃다발은 또 어찌나 많이 주던지..... 다 받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러니 어찌 그 때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죠.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50년이 흘렀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당시 제 남편 나이가 38살이었고 제가 34살이었는데....., 세월 참 빠르군요.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나 아쉽게도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변월룡 - 그랬었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아내 때문에 인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어. 내 체면 세워주느라고. 왜냐하면 나는 두 달 후에 돌아오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환송할 필요가 없었거든.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고국의 긴 상념과 기억의 저편 - 고국 재방문을 염원하다 10년 만에 접다.

필자 - 그림 이제 귀국 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국 후에 많이 바빴겠습니다. 두세 달이라고 하지만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사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변월룡 - 그랬지. 귀국 보고에 이어 곧 출국 준비도 해야 했으니 바빠 움직여야 했다네. 특히 평양미술대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과 미술재료 구입, 고국에서 사귀 지인들 선물까지 준비해야 했으니까.

필자 - 제가 알기로 당시 레닌그라드에는 '레닌그라드 봉쇄'에서 벗어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던지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불편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변월룡 - 맞아요. 필요한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을 샅샅이 뒤졌고, 미술재료를 사기 위해 분주히 화방을 들락거렸지만, 그래도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은 암시장을 뒤지거나 심지어 먼 모스크바까지 다녀오기도 했다네.

필자 - 결국 평양미술대학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정말 허탈하셨겠습니다.

변월룡 - 말하면 뭐 하겠나. 출국을 위해 싸 놓았던 짐을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서야 풀었다네.

필자 -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까지 계속 복귀 희망을 가졌다는 뜻이군요.

변월룡 -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복귀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의 편지들을 한 번 읽어 보시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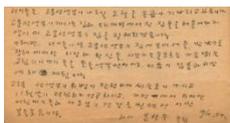


그림 26. 문학수의 편지.

1954년 10월 14일.

“저희들은 고문 선생님이 나오실 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문 선생님이 계시던 집과 우리 대학에서 지은 집들을 허물어다가 양시에 고문 선생님의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나오시면 저희들이 또 고문 선생님의 집에 모여서들 밤낮으로 장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가슴 뛰는 그림의 이야기들을 들을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기쁨과 희망에 차게 됩니다.”

(문학수, 1954년 10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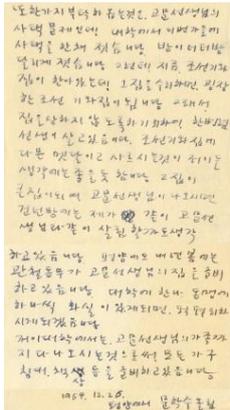


그림 27. 문학수의 편지.
1954년 12월 26일.

이어 12월 26일 편지에서는,

“또 한 가지 부탁하옵는 것은 고문 선생님의 사택 문제인데, 대학에서 이번 가을에 사택을 한 채 지었습니다. 방이 너댓 개 달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수리하면, 굉장한 조선기와집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병령 선생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기와집에 다만 몇 달이고 사시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좋을 듯합니다.

그 집이 큰 집이 되어 고문 선생님이 나오시면 건넌방에는 제가 같이 고문 선생님과 같이 살림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에도 내년 봄에는 관철 동무가 고문 선생님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하나, 동맹에 하나씩 화실이 있게 되면 펍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고문 선생님의 가족까지 다 나오시는 것으로서 모든 가구, 침대, 책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수, 1954년 12월 26일)

한설야도 문학수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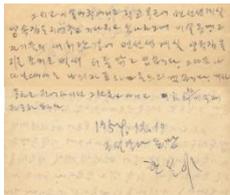


그림 28. 한설야의 편지.
1954년 12월 10일.

“미술 대학에서도 학교 부근에 변선생 계실 양옥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오며 미술 동맹도 자기들의 새 회관 곁에 변선생 계실 양옥집을 지을 준비로 벌써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다닐 때에는 나의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동차는 전에 타시던 그런 차가 아니고 화려한 미국제 자동차입니다.”

(한설야, 1954년 12월 10일)

필자 - 편지 내용을 보니 선생님께서 오시면 생활할 수 있도록 문학수와 정관철은 이미 집기 일체를 갖춘 집과 넓은 화실까지 준비했고, 한설야는 자신의 '미국제 자동차'까지 주겠다면서 선생님이 오시는 걸 확신하고 있군요. 그런데 문학수의 편지에 “나오실 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근법 학부장인 한병령도 1955년 1월 15일 자 편지에서 “2월에는 오신다고 하시기로 요즘은 더욱 기다려집니다. 선생님 속히 나오시기를 [...]”라며 2월 복귀를 굳게 믿고 있는데, 2월 복귀 규정은 어떻게 나온 말인지요?

변월룡 - 이미 신학기가 시작돼 그 학기를 마무리 짓자면 2월이 적절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초청장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네.

필자 - 결과적으로 2월 복귀설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도 고국의 지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복귀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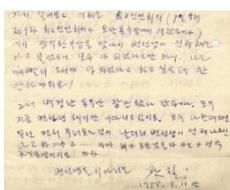


그림 29. 정관철의 편지.
1955년 3월 11일.

“어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익환 부상을 만나서 변선생이 언제 오시는가고 물었더니 모두 다 되었다고만 하니, 나는 어서 빨리 오셔야 다 되었다고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 모두 지금 변선생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지요. 모두 나한테 오면 우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날더러 변선생이 언제 나오신다고 하느냐고..... 아마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가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정관철, 1955년 3월 11일)

“아무튼 선생이 오셔야 나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선생이 오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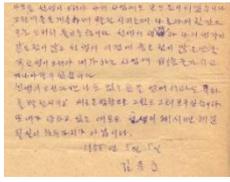


그림 30. 김용준의 편지.
1955년 5월 5일.

나도 없는 틈을 얻어서라도 목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애로도 선생이 계시면 해결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용준, 1955년 5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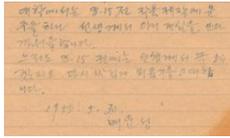


그림 31. 배운성의 편지.
1955년 5월 30일.

“변선생이 조선 오시는 문제에 대하여 수차 정률 동지와 상의했는데 곧 오시게 된다고 하였는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 미술 동맹 동무들은 만나면 변선생이 언제 오시는가고 나와 조릅니다. 정말 모두 목이 마르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선생이 조선으로 오시는 문제는 꼭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리기영 동지 환갑(탄생 60주년) 축하연에서 정률 동지를 만나서 역시 선생이 조선으로 오시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설야, 1955년 5월 29일)

“대학에서는 8·15 전 작품 제작에 분주들 하나 선생께서 아니 계심을 안타까워드립니다. 늦어도 8·15 전에는 선생께서 꼭 오시겠지요. 다시 반갑게 뵈옵기를 고대합니다.”

(배운성, 1955년 5월 30일)

“두 달 후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셨기에 두 달을 기다렸고, 2 월에는 나오신다, 4 월에는 나오신다, 8·15 전까지는 나오신다고 선생님이 나오시는 기일이 웬일인지 하루하루 늦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수, 1955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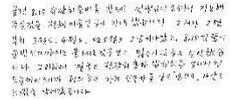


그림 32. 김주경의 편지.
1955년 10월 16일.

“금년 8·15 전람회 준비를 반드시 선생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실 것을 전체 미술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3월도, 4월도, 또 5월도 그냥 지나갔고, 8·15 작품이 운반되기까지도 못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전람회 총화합평회를 가지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마치 인술자를 잃은 ‘양 떼’와 같은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김주경, 1955년 10월 16일)

변월룡 - 이런 편지들이 올 때마다 나는 마치 그들에게 죄를 진 느낌이었다네. 하긴 파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소련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나 나나 얼마나 아쉬웠겠어.

필자 - 김주경 학장님의 편지에서 “저희들은 마치 인술자를 잃은 ‘양 떼’와 같은 느낌”이란 표현이 참 진솔해 보입니다. 이 편지 내용만으로도 선생님의 공백이 얼마나 컸고 또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국을 위해 1년 가까이 꾸려놓은 집을 이제야 풀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소련으로 귀국 전 북한 당국에 양해를 구했고, 북한 당국은 “두세 달 후에 초청장을 보낼 터이니 소련에서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왜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이미 숙청 대상자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변월룡 - 그걸 알았으면 내가 그 당시 왜 답답했으며, 또 고국의 지인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저기 복귀 연유를 알아보려 노력했겠나?

필자 -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하네요.

변월룡 - 그때는 내가 숙청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네. 아니 상상할 수가 없었지. 1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불현듯이 머릿속에 귀국하기 전, 북한 당국이 나에게 은밀히 '귀화 권유'를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 당시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네. 아내가 러시아인인데다 이미 두 아이를 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승낙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게다가 레핀미술대학에 몸담은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겨우 서른여덟이었으니 한참 더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나는 북한 당국에 "고국의 화가들에게 보다 발전된 연구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북한에 머물며 정체되기보다는 자주 다녀가는 편이 서로를 위해 낫다"는 요지의 말로 권유를 거절했다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네. 좁은 공간 안에 안주하기보다 넓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은 욕심과 더불어 고국에 대한 인연의 끈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북한 당국자도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하여 당연히 그때 일단락된 것으로 여겼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오.

필자 -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선생님은 귀국 후, 전시회마다 줄곧 고국 관련 그림만 출품하셨다고요? 이는 혹시 고국에 복귀 희망을 피력한 일종의 신호 같은 것은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군요. 실제로 선생님이 출품한 전시회는 늘 고국에서 화제가 되니까요.

변월룡 - 부인은 못하겠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국을 다녀온 뒤부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작품에 대한 의미를 더 찾게 되더라고.

필자 - 그건 아마 선생님의 정체성이 이전보다 더 확고해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고국에서 그린 작품 <금강읍에서>(1954)가 국립러시아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변월룡 - 아, 멀리 금강산이 보이고 중심에는 머리에 붓짐을 인 아낙네와 소달구지가 길을 따라 지나가고, 야트막한 언덕에는 몇몇의 주민들이 서있거나 앉아있는 그 그림 말이구나!

필자 -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한편, 선생님은 고국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꽤 자주 그리고 많이 보내셨더군요. 북한 지인들이 선생님께 쓴 편지를 읽어보니, 각각의 전공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물하셔서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변월룡 - 아마 고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나 재료 위주로 보냈으니 만족도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

필자 - 선생님, 1959년에 고국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산되었다고요?

변월룡 - 그렇다네. 1958년 어느 날, 고국의 지인으로부터 '해외동포 고국방문단 모집'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접했지.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이 되었다더군. 고국방문단 모집은 김일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고국의 발전상을 선전할 요량이었다는 거지. 잠시의 여행으로나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더군. 그때부터 나는 고국의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네.

필자 - 아하, 그래서 유독 1958년, 59년작 판화가 많았던 거군요. 그리고 판화가 아무래도 부피와 무게가 덜 나가니 많이 소지할 수 있어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변월룡 - 북한 여행증명 수속을 기관에 접수시키고는 부분 가슴을 안고 정관철에게 '아마 8월이나 9월경에 떠나게 될 것 같다'고 편지를 썼지. 방학을 이용하여 다녀올



그림 33. <금강읍에서>, 이 작품은 일본 오이타시 역사박물관의 카이오 후쿠마(철학 박사) 씨가 2018년 국립러시아미술관에서 소장 확인하고 직접 찍은 사진임.



그림 34. <금강읍에서>, 1954, 캔버스에 유채, 37x95cm. 국립러시아미술관 소장.



그림 35. <정주>, 1958, 동판화, 19.8x48.5cm



그림 36. <바람>, 1959, 동판화, 40x6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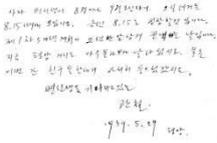


그림 37. 정관철의 편지.
1959년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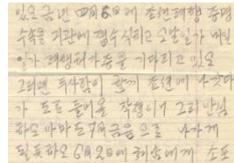


그림 38. 큰 누이의 편지.
1959년 6월 5일.



그림 39. 1960년 새해에 이팔찬으로부터 온 연하장.



그림 40. <화가 이팔찬>, 1955, 종이에 목탄, 64x34cm



그림 41.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 1960, 동판화, 34.5x64cm

참이었거든. 정관철은 답장을 다음과 같이 썼더군.

“아마 변선생이 8월이나 9월 오신다니, 오시려거든 8·15 때 오십시오. 금년 8·15는 굉장할 것입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 앞당겨 끝내는 날입니다. 지금 평양 거리는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변선생을 기다리고 있는 관철. 1959. 5. 29. 평양)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이 편지가 정관철의 마지막 편지라네.

필자 - 왜죠?

변월룡 - 고국방문 심사 과정에서 내가 탈락되었다네. 아무도 예상 못 한 결과였지. 북한 당국은 한 명이라도 더 고국방문을 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기에 방문 신청만 하면 모두가 다녀올 수가 있었다네. 그래서 고국방문을 신청한 고려인은 나만 빼고 모두 다녀왔다네.

필자 - 선생님의 큰 누이와 큰 매형이 보낸 1959년 6월 5일 자 편지를 보니 “금년 4월 6일에 조선 여행증명 수속을 기관에 접수시키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여행 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소.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조선에 나갔다가 도로 돌아올 작정이니 그리 안심하오. 아마도 7월 그믐으로 나가게 될 듯하오.”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들도 다녀오셨습니까?

변월룡 - 다녀왔지. 유독 나만 제외된 거라네.

필자 - 기대가 좌절되었으니 낙담이 크셨겠습니다.

변월룡 -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서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숙청 대상자에서 마침내 숙청자로 분류되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 귀화 권유를 따르지 않은 죄가 이처럼 가혹한 형벌로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나?

필자 - 정관철의 1959년 5월 29일 자 편지가 마지막이 되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숙청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이군요.

변월룡 - 그렇지.

필자 - 그 이후, 절친 문학수와 한설야도 편지가 없었습니까?

변월룡 - 물론 없었だね. 숙청된 사람에게 서신 교환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겠지.

필자 - 딸 올가의 화실에 동양화가 이팔찬이 보낸 새해 연하장이 걸려있더군요. “一九六〇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팔찬”이라는 문구와 함께 매화를 그려 넣은 연하장 말입니다.

변월룡 - 아직도 걸려있는가 보군. 내가 직접 액자를 했는데..... 사실 그 연하장을 끝으로 고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 없었だね.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2년 후, 1962년에 세상을 떠났다네. 이 친구, 남한에서 월북했는지?

필자 - 네, 충청남도 공주 출생인데, 서울에서 이당 김은호 문하에서 동양화에 대한 기초 수업을 연마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42년 제국미술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조선미술가동맹 서울지부 총무과장을 지내다 1950년 월북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그렇고 1960년에 그린 동판화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에 깨알 같은 글씨로 “보고 싶은 청진을 보지 못하고 레닌그라드에서 깊은 생각만 가지고 그렸습니다. 변월룡”이라는 선생님의 당시 심경을 새겼더군요. 이 글만 보더라도 당시 선생님이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했는지가 단번에 읽히더군요.

변월룡은 196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말이야 쉽지 레닌그라드에서 연해주까지 장장 10,000km가 넘는 거리인데, 강제 이주로 인해 고향 사람도 한 명 없는 그 곳을 왜 굳이 매년 다니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림 42. 글씨 확대. 제목 옆에 깨알 같은 글씨로 "보고 싶은 청진을 보지 못하고 레닌그라드에서 깊은 생각만 가지고 그렸습시다. 변월룡"이 적혀 있다.



그림 43.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하여 사진 한 컷!



그림 44. <조선분단의 비극>, 1962, 동판화, 44x64.5cm



그림 45. <자화상>, 1963, 캔버스에 유채, 75x60cm



그림 46. <취코토보>, 1964, 동판화, 49x91.4cm

변월룡 - 그때는 정말 그러했다네.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의 처지가 얼마나 절실하게 애달팠던지.....

필자 - 선생님을 연구하다 보니 역마살이 끼었던지 1960 년 이후부터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더군요. 소련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려 사할린에서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를 망라하셨더군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의 15 개 공화국만 해도 엄청 크고 넓은데, 공산 국가를 벗어나 서방 세계까지 다니셨으니 역마살이 안 끼고서는 달리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월룡 - 소련은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국민에게 외국 여행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네. 마침 딱 그 시기에 내가 고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실을 알았던 터라 그 상실감을 해소한답시고 여행 기회를 활용했지. 그때는 정말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다네.

필자 - 1961 년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를 다녀오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67 세의 나이인 1983 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끝으로 여행이 멈추더군요.

변월룡 - 뇌졸중이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지.

필자 -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여행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변월룡 - 나에게 있어 여행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네. 나의 경우 공산 국가에서 죽 살다 서방 세계로 나가보니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네.

필자 - 그것만이 아니었잖습니까. 선생님은 1961 년부터 4 년 동안 방학 때마다 연해주를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말이야 쉽지 레닌그라드에서 연해주까지 장장 10,000 km가 넘는 거리인데다, 강제 이주로 인해 고향 사람도 한 명 없는 그 곳을 왜 굳이 매년 다니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변월룡 - 당시 나는 숙청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요량으로 외국 여행을 다녔는데, 사실 여행은 잠시 머리를 식힐 뿐 근본적 치유 효과는 없더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가 태어나 20 여 년을 살았던 고향을 찾게 되었다네.

필자 - 아, 그래서 이 시기에 고국 관련 소재의 그림이 많았던 거였군요. 그런데 1964 년을 기점으로 고국과의 인연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 같은데, 무슨 곡절이라도 있었습니까?

변월룡 - 당시의 정치적 상황, 즉 중소 분쟁에 따른 소련과의 심화된 갈등 때문이었다네. 중·소 분쟁이 시작되자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동조하는 경향을 띠었고, 그때부터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지. 국가 간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나도 고국과의 인연이 여기까지란 걸 직감한 거지.

필자 - 그래서인지 1963 년에 그린 유일한 <자화상>과 1964 년에 그린 연해주 고향마을 <취코토보>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군요. <자화상>에서는 왠지 모를 슬픈 체념과 서러움이, <취코토보>에서는 마지막 발걸음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귀국 후, 고국에 대한 상념에서 벗어나는 데 10 년이 걸린 셈이군요.

변월룡 - 그땐, 참 허망했지. 그때가 내 나이 마흔 여덟 살이었다오.

일상 속에서 자아를 찾다 - 유라시아 기행을 통해 정체성에 확신을 갖다

필자 -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2년 후, 또다시 연해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발길을 무려 1980대 초반까지 십수년간 그 먼 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1964년을 기점으로 고국을 완전히 잊고 본분에 전념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선생님께서 하여금 다시 연해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까?

변월룡 - 사실 이때부터는 고국에 대한 미련이 있어 찾은 것은 아니었다네. 고국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좀 자유로워진 상태였다고 할까? 대신 나이가 들고 또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자꾸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필자 - 이 말인즉슨 연해주 방문 성격이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변월룡 - 1964년 이전까지는 숙청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성격이 짙었다면, 이후에는 나 자신을 찾는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 싶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만 다른 여행지와 달리 연해주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포근하면서 편안했거든. 그래서 이곳을 들렀다 가면 묵혔던 스트레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자주 찾았던 것 같아.

필자 - 그래서 이 시기부터 고국 관련 소재 작품들을 단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1964년 이전까지를 고국 연장선상으로 삼아 숙청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연해주 방문이었다면, 그 이후는 순전히 자아정체성을 찾는 방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변월룡 - 음....., 뭐, 거창하게 정체성까지 운운할 것은 없고, 그냥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네.

필자 - "그냥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고 하셨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널려있는데,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셨다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일상생활에서 선생님께서 마음을 많이 다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러시아인으로서의 삶에 순응하며 평온한 듯 했지만, 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민족차별과 인종차별 등으로 속이 곪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기에 방학만 되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그 먼 곳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변월룡 - 자네의 말을 들으니 마치 내가 고질적인 마음의 병을 앓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연해주를 찾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가?

필자 - 작품 소재들에서 선생님의 아픈 심리적 상황과 당면한 처지 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변월룡 - 대체 어떤 소재에서 말인가?

필자 - 네. 버드나무, 꽃사슴, 뒤틀린 소나무 등에서입니다. 이 소재들은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동북아 지역에 분포돼 있는 소재들이고, 선생님은 이 소재들을 모두 연해주에서 취하셨습니다.

변월룡 - 그렇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근데 그것에서 내 심경과 처지가 엿보였다고?

필자 - 이 소재들을 통해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드나무인데, 이 소재의 실상은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버드나무, 바람>, <비,



그림 47. <비 (버드나무)>, 1971,
동판화, 18x24.3cm



그림 48. <가을>, 1977,
캔버스에 유채, 80x90cm



그림 49. <나훗카의 소나무>,
1962, 동판화, 64.5x39.5cm



그림 50. <나훗카의 초등
1년생들>, 1966, 동판화,
38x69cm



그림 51. <블라디보스토크
해변>, 1972, 동판화, 36.7x90cm

버드나무> 등으로 붙인 것이 많고, 특히 버드나무는 축 늘어진 버들가지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려 바람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소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심정을 구체적인 사물로 가시화시킨 것이 버드나무이고, 선생님은 그 버드나무를 통해 바람 같은 자신의 존재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경계인으로서의 선생님은 약간의 실바람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버들가지를 통해 당시 선생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바람은 선생님이 원치 않아도 불었으니까요.

꽃사슴 역시 항상 주위를 경계하면서 나뭇잎이 뒹구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는 특성을 지닌 점에서 바람 표현 소재인 버드나무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꽃사슴은 선생님 자신의 심경을 긴 모가지에 이입시켜 접경 너머의 고국으로 향하고픈 시선, 그리움을 은유 내지는 상징적으로 나타낸 점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휘둘림'이라면, 사슴은 '놀람'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둘 다 소수민족의 비애, 즉 러시아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선생님 자신의 심경이 그 소재에 투영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뒤틀린 소나무 소재는, 선생님께서 비록 공간적 삶은 러시아지만 정신적 삶은 한민족에 두고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소재는 선생님께서 그동안 일관되게 그려온 소재라 특별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선생님께서 속내를 사물을 빌어 표현한 소재들인데, 이 소재들은 당시 선생님의 심경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러시아 국적이면서 러시아인이 아니고 한민족이면서 한민족 취급을 못 받는 한 선생님의 이 소재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변월룡 -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난 단지 그때의 감정선에 충실했을 뿐인데 말이야.

필자 - 선생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렘브란트의 영향을 그토록 많이 받으면서도 전혀 받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화상입니다. 알다시피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화가로 유명하잖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남의 인물화를 솔하게 그리셨음에도 정작 본인의 얼굴은 그리시질 않았습시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지녔으면서도 왜 자화상을 그리지 않으셨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혹시 남의 땅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선생님의 존재가 부질없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신지요?

변월룡 - 너무 속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게. 나에게 진실로 대해준 소련 지인들이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나. 솔직히 당시 나는 레닌그라드를 '현실적 생활공간'으로 여긴 반면, 연해주를 '정신적 삶의 공간'으로 여긴 측면이 있었다네. 그랬기에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연해주를 다녀올 수 있었지. 그런 점에서 나에게 있어 연해주는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무릉도원 같은 곳이었지.

필자 -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나훗카의 초등 1년생들>(1966)과 <블라디보스토크 해변>(1972) 등의 작품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은 마냥 순수 그 자체이고, 해변가의 소녀가 우산이 뒤집히지 않으려 애쓰는 깜찍한 행동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에서 당시 선생님의 행복 크기가 느껴지더군요. 이쯤에서 연해주에서 태어나 20여 년을 생활한 과거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났으면 합니다.

변월룡 - 나는 1916년 9월 29일 연해주 쉬코토프스키 구역의 유랑촌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네. 거기에서 10년간을 지내고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그림 52. 연해주 학창시절의 변월룡 (10 대 중후반 무렵 추정).

10 년가량을 생활했지.

필자 - 제가 알기로 당시 고려인들 중 원호(原戶)와 여호(餘戶)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선생님의 가족은 여호에 속했다면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병진년 용띠해 달밤에 태어났다고 지은 이름 월룡(月龍)을 평생 고수하셨다고요?

변월룡 - 당시 고려인들 중 귀화인을 원호라하고 비귀화인을 여호라 불렀는데, 원호들은 시세에 영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호들은 강한 민족정신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었지. 내가 월룡이란 이름을 평생 고수한 것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지.

필자 - 선생님의 작품들에 한글과 한자 서명, 때로는 한글 글귀를 새겨 넣어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선생님은 한인 자녀들만 다니던 '블라디보스토크 8 호 모범 10 년제 학교'에 다니던 중 7 학년(16 살)에 접어들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요?

변월룡 - 주독야화(晝讀夜畵)라고나 할까?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 그림을 그려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네.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인 셈이지.

필자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변월룡 - 그림에 자신이 있다 보니 '아동 도서 출판사'에 들어가서 그림 삽화를, 한국 영화만을 상영하던 극장들의 간판과 포스터를 그려 가족을 도왔다네. 그때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 나도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필자 - '아동 도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 삽화도 죄다 선생님이 그리셨다고요?

변월룡 - 맞아.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월룡은 자기가 만든 책으로 자기가 공부한다"는 일화가 오랫동안 재미있게 회자되곤 했다네.

필자 - 정상진 선생님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더군요.

"월룡은 정도 참 많았습니다. 가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먹을 것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먹지 않고 지니고 있다가 누나나 친구와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또 월룡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애가 친구들에게 주로 베푸는 편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애가 사준 사탕을 쪽쪽 빨면서 함께 길거리를 걷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사탕이 얼마나 맛있던지....."

변월룡 - 허허허 녀석. 개가 나보다 2 살 아랜데 내가 늦게 학교를 입학하는 바람에 같은 반 친구가 되었지. 그랬던 놈이 북한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나한테 얼마나 유세를 떨던지.

필자 - (웃음). '블라디보스토크 8 호 모범 10 년제 학교'를 졸업 후 1 년 뒤, 주변의 도움으로 우랄산맥 인근의 스페르들로프스크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나셨죠?

변월룡 - 애초부터 나는 유학은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네. 가정 형편상 10 년제 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 감지덕지였던 터에 유학은 당치도 않았지. 그러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학의 기회가 예기치 않게 찾아오더군. 주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몇 푼씩 모아서 유학을 떠나라는 거야.

필자 - 이유가 무엇이었습니다?

변월룡 - 유학을 갔다 오면 지역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야.

필자 - 추측건대 그 이유는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설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처럼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한 기반 확충 차원이



그림 53. <사회주의 노동영웅
어부 한슈라 (A. S. 한)>, 1969,
캔버스에 유채, 200x115cm



그림 54. 한슈라의 생전 모습.



그림 55. <원로 당원들의 단체
초상화>를 위한 습작, 1986,
캔버스에 유채, 60x50cm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치주 설립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그 당시 자치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연해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설 중 중요하게 꼽히는 하나가 바로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설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훗날의 그때를 염두에 두고 선생님을 미술 전문가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 확실시됩니다.

변월룡 - 나도 그때 문 군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듣긴 들었대네.

필자 - 선생님은 연해주에 가지 않고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을 만나려고 1968 년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해주에서 사할린을 다녀오기가 그리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변월룡 -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고려인의 금지가 된 자랑스러운 알렉산드라 시테파노브나 한(1906-1988, 이후 한슈라)을 꼭 만나고 싶었지. 한슈라는 한인들만의 어부 단체를 결성해, 그녀가 이끄는 팀은 해마다 1년 어업 계획의 250%~350%을 초과 달성하며 어선단 전체에서 항상 최고의 어획량을 자랑했지. 그리하여 한슈라는 레닌 훈장 2 개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유일한 여성이었다네. 당시 고려인 중 농업 분야에서 김병화(1905-1974)가 최고의 이름을 떨쳤다면, 어업 분야에서는 단연 한슈라 그녀였네. 당시 TV 에서 다큐로 자주 방영이 돼 고려인들이 잘 알고 있었지.

필자 - 선생님의 그림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여자임에도 남자 못지않은 당당함과 건강함, 그리고 자기 확신도 엿보이는 반면에, 얼굴에서는 선함과 순수 미소를 머금게 표현하여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 선생님 자신이 더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변월룡 - 하하, 그렇게 보이던가?

필자 - 이제 선생님의 일상으로 화제를 돌려볼까 합니다.

변월룡 - 글썄, 나의 일상이 너무 단순한 일상이라.....

필자 - 먼저 교수로서의 일상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변월룡 - 1 학년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쳤는데, 대체적으로 일정한 편이었지. 오전 9 시에 출근하여 수업이 끝나는 11 시가 되면 화실에 들렀다가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다시 수업에 임했다네. 그리고는 집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화실로 가서 늦은 밤까지 지냈지. 교수로서의 일상은 이 테두리 안에서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네.

필자 -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1977 년, 나이 61 세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셨습니다. 1951 년 조교수에서 1953 년 부교수로의 승진은 2 년 만에 쾌속 승진한 것에 비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은 무려 24 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반세기 만에 정교수로 승진했다는 것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게다가 교수 재직 내내 1 학년 데생만을 전담했습니다. 그것도 회화과를 수석 졸업한 사람을..... 이것이 이민족 화가로서 받은 냉대와 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월룡 - 허허허. 그래도 정교수 위치에 오르긴 올랐지 않은가.

필자 - 이것만 봐도 선생님께서 왜 방학만 되면 연해주로 가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변월룡 - 하하하. 자네가 마치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느낌일세.

필자 - 아들 세르게이의 말을 빌면, "아버지는 늘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디를 가든지 주어진 분위기에 아주 빨리 적응했고, 또



그림 56. <강아지 '무하'와 함께한 A. T. 푸쉬닌>, 1973, 종이에 목탄, 63.5x49cm

사람을 끄는 묘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화력이 탁월했던 게지요. 어느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동아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분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손이 워낙 빠르다 보니 모델들은 전혀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재미있어 했죠. 나도 화가지만 아버지만큼 정확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아직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변월룡 - 팔이 안으로 굽는다더니..... 자화자찬 같아 대답은 통과하겠네.

필자 - 선생님은 당구에 일가견이 있었다고요? 세르게이와 올가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당구를 무척 잘 쳤습니다. 레닌그라드 예술가협회 내에서 아버지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기를 하면 항상 아버지가 땀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변월룡 - 틀린 말은 아니네. 사소한 것이지만, 뭐든지 소련인들에게 지고 싶지가 않았지.

필자 - 그 외 취미로 "아버지는 또 금붕어 기르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실에 큰 어항을 설치해 놓고는 멀리까지 가서 금붕어 장수들과 흥정을 하여 금붕어를 사 오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희귀한 물고기들을 사는 일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리고 금붕어를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언제나 본인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취미로는, 새를 키우는 것과 식물을 가꾸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변월룡 - 맞네. 내 취미가 좀 감성적인 편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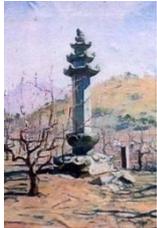


그림 57. <다라니 석당(石幢)>, 1954, 캔버스에 유채, 71x51cm. 평안북도 피현군 불정사(佛頂寺) 폐사지에 있을 때의 다리니 석당(石幢).

삶의 황혼기를 맞다 -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향수에 젖다

필자 - 선생님은 1985년 어느 날, 예순아홉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뇌졸중이었고, 이로 인해 35년을 몸담은 레핀미술대학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투병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변월룡 - 그랬었지. 병의 징후는 1년 전부터 서서히 있어왔던 것 같아. 예전과 달리 쉬이 피로를 느끼곤 했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휴식과 수면 부족 정도로만 여겼지 건강의 적신호인 줄 몰랐다네. 그전, 그러니까 1982년 연해주, 1983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다녀오는 등 적어도 그때까지는 건강했기 때문에 추후도 의심을 안 했다네.

필자 - 나이가 들고 심신이 허약해지면 자꾸 과거가 회상된다더니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었던군요. 느닷없이 30년 전에 그린 평양미술대학 인근의 <다라니 석당(石幢)>(1954)을 끄집어 내 더 큰 화폭에 다시 그리려고 시도한 것이라든지, 4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1985) 초상화를 갑자기 그린 것 등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곳의 기념비, 다라니 석당(石幢)>(1984)은 삼총사 중 막내 동갑 정관철이 1983년 12월 2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는, 그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변월룡 - 그건 그래. 정관철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삼총사가 다라니 석당이 있던 불정사(佛頂寺)의 폐사지에 자주 소풍 갔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옛날 고국에서 그려온 그림을 바탕으로 잠시 추억을 되씹었다네.

필자 - 선생님, 이 '다라니 석당'은 이제 평안북도 피현군 불정사(佛頂寺)의 폐사지에 있지 않고 1987년 3월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로 옮겼습니다.



그림 58. <그 곳의 기념비, 다라니 석당(石幢)>, 1984, 캔버스에 유채, 80x90cm



그림 59. <어머니>, 1985,
캔버스에 유채, 119.5x72cm



그림 60. 작품 <어머니> 사진
위에 정성 들여 '어머니'라고 쓴
글씨.



그림 61. <금강산의 소나무>,
1987, 캔버스에 유채,
72x129.5cm

변월룡 - 아, 그런가?

필자 - 1985년에는 <어머니> 초상화를 그리셨습니다. 어머니가 19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만에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셨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막상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보니 더욱더 그리우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온갖 세파를 이겨낸 후의 평온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변월룡 - 참, 온갖 거칠고 모진 세파를 몸소 겪으시며 다 헤쳐 나가셨지. 그런 어머니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외동아들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나이가 드니 한이 되더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불효자가 아닐 수 없다네. <어머니> 초상화는 나의 그런 참회의 심정이 담겼네. 그리고 러시아 말을 모르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글로 '어머니'라고 썼던 것이고.

필자 - 선생님은 <어머니>를 그린 후, 얼마 안 가 쓰러지셨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는 서서히 삶을 정리하는 성향, 말하자면 예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들에서부터 유년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가끔 떠오르는 고국의 자연 등에 관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더군요.

변월룡 -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니 주로 오랜 친구와 어린 시절의 추억, 고국의 산천초목이 더 많이 생각이 났지. 육체가 병들면 모태 회귀, 곧 고향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킨다더니 내가 바로 그러했다네.

필자 - 네, 언젠가 세르게이와 올라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도 만나겠다며 잠깐 다녀오시곤 하셨어요."라고요.

변월룡 - 그때는 생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별수가 없는 사람이었지. 세월이 흘러도 몸 안의 한민족 DNA는 어찌할 수가 없더군.

필자 - 선생님, 문학수 선생님이 1988년 3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아셨습니까?

변월룡 - 나도 알고는 있었다네.

필자 - 뒤이어 선생님께서도 1990년 5월 25일, 일흔넷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총사 중 선생님께서 가장 장수하신 셈이십니다.

변월룡 -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조금 더 산 것이 무슨 대수겠나. 인생은 무상하다네.

필자 - 선생님의 삶이 헛되고 덧없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소련 땅에 살면서도 한국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작품 곳곳에 새긴 한글과 한자 서명이 그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그렇게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왜 굳이 선생님이 한국인임을 애써 강조하며 험난한 길을 택했는지 저는 잘 압니다.

변월룡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필자 -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무덤 비석에도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게 했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 땅에서 그것도 교수라는 직업을 지닌 채 어떻게 평생 동안 자신이 한국인임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작품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뒤틀린 소나무는 바로 한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림 62. 할아버지의 고국 전시회,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展을 보기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손자들.



그림 63. 투병 중에도 그림에 열정을 보이는 변월룡. 이 두 손자가 변월룡 고국 전시회에 다녀간 손자들임.



그림 64.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부 묘지(Северное кладбище)에 안치된 변월룡의 묘.

변월룡 - 그만하세요! 남세스러우니. 한 일도 없는데 너무 띄우니까 당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네.

필자 - 하하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소련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열과 자부심을 심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변월룡 - 하나 물어나 보세. 나는 한국에 전혀 연구도 없고, 또 아무런 도움을 준 것도 영향력을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문 군은 굳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네.

필자 -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 안에 저의 대답이 충분히 녹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선생님의 존재와 위상에 비해 세상에 너무 덜 알려진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남·북통일 한국미술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미술의 뿌리인 선생님을 빼고는 북한 미술을 논할 수가 없기에 선생님을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월룡 - 잘 알겠네. 아무튼 문 군 덕분에 내가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숙청시킨 나를 남한에서 거둔 꼴이 되었구먼! 아무튼 문 군이 나를 고국에서 부활시켜줬으니 생전에 헛살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구려.

필자 - 선생님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고국의 한국인에게도 한민족의 열과 혼,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거든요. 선생님의 아들 세르게이와 딸 올가는 물론 손자 두 명과 증손녀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들도 정말 만족해했습니다.

변월룡 - 나는 74 년이란 삶 중 단 1 년 3 개월 남짓의 고국 생활을 제외하면, 소련 땅에서 그것도 온전히 냉전시대만을 겪다 생을 마감했다네. 보아하니 내가 이승을 하직하고 4 개월 후에 한. 러 수교가 체결되었다는데, 조금만 더 일찍 수교가 체결되었더라면 고국의 반쪽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한스럽구려.

필자 - 선생님, 아쉽지만 이제 선생님과 대화의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변월룡 - 아, 그래? 하긴 좀 피곤하긴 하네. 아무튼 나의 자식들과 계속 친형제처럼 잘 지내주길 바라네. 아, 그리고 끝으로 나를 위해서 생전에 내가 좋아하던 푸쉬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문군이 한번 읊어주시겠나?

필자 - 네, 선생님.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상하게 대답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계신 곳으로 제가 가서 뵈 때까지 편안하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쉬킨(Alexander Pushkin)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6. 작가 약력

변월룡 (邊月龍, 1916~1990)

- 1916 년 9 월 29 일 연해주(沿海州) 쉬코토프스키 구역의 유랑촌에서 1 남 2 녀 중 막내로 태어남. 농부였던 아버지 변창호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가출, 이후 생사 여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음.
- 1922 년 (6 세) 할아버지가 유랑촌 인근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중국인 서예가에게 손자 교육을 부탁함. 변월룡은 그때 배운 서예가 교육의 전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마저 그만두게 됨. 하지만 그때 익힌 한자 서예는 훗날 화가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됨.
- 1926 년 (10 세)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 있는 '4 년제 한인 학교'에 입학. 보통 만 7 살에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3 년 정도 늦은 입학이었음.
- 1928 년 (12 세) 당시 전면적 학제 개편(10 년제로 전환)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8 호 모범 10 년제 학교'로 전학. 그 학교는 고려인들이 세워 고려인 자녀들만 다녔던 학교로서 당시 한인 학교 중 가장 명문이었음. 변월룡은 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림에 천부적 재능을 드러냄.
- 1932 년 (16 세) 7 학년 때부터는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동 전문 출판사에서 전문적 삽화를 그림. 연해주 일대의 한인 학교의 전 학년 전 과목 교과서 그림을 혼자 도맡아 그림. 아울러 극장들의 포스터와 간판을 그리는 일에도 뛰어들어 가정을 도움.
- 1936 년 (20 세) 일과 공부를 겸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침.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함.
- 1937 년 (21 세) 우랄산맥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스베르들로프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미술학교에 입학.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함. 변월룡은 연해주를 떠나있어서 강제 이주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타슈켄트로 강제 이주 당하면서 가족과의 소식이 끊겨 한동안 이산가족으로 지냄.
- 1940 년 (24 세) 스베르들로프스크 미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예술아카데미(현 레핀·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 회화부에 합격. 그곳에서 네 살 아래인 평생의 동반자인 부인 제르비조바를 만남. 변월룡은 회화부 학생이면서도 스스로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 틈만 나면 판화 화실에 들러 동판화와 석판화를 전문적으로 익힘.

- 1941 년 (25 세) 1 학년을 마치던 6 월 초에 어머니와 누이가 살고 있는 타슈켄트로 떠남. 그때 뜻밖에도 독·소전쟁과 맞닥뜨리게 됨.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 학교로 돌아가려 하지만 '레닌그라드 봉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타슈켄트의 한 출판사에서 삽화 그리는 일을 함.
- 1942 년 (26 세) 2 월 19 일, 예술아카데미는 포위된 도시 레닌그라드를 탈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로 피난함. 3 월 말경 무사히 사마르칸트에 도착. 학기 시작할 즈음에 변월룡도 사마르칸트에 와서 합류. 거기서도 변월룡은 학업과 타슈켄트 출판사에서 정치 포스터를 제작하는 일을 병행함.
- 1944 년 (28 세) 예술아카데미가 자고르스크로 피난처를 옮김. 거기에서 변월룡은 동급생 제르비조바와 결혼. 여름 방학 때 중병이 걸린 어머니를 보러 혼자 타슈켄트로 감. 9 월 말경에 예술아카데미는 자고르스크에서 레닌그라드로 돌아가고, 변월룡은 타슈켄트로 피난 왔던 레닌그라드 음악원 학생들에 끼여 레닌그라드로 돌아감. 전쟁 후 러시아 예술아카데미는 '레핀 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으로 개명.
- 1945 년 (29 세) 5 월 9 일 제 2 차 세계대전 종료. 첫아들 알렉산드르가 태어나고,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
- 1947 년 (31 세) 레핀 회화·조각·건축 예술대학(이후 레핀미술대학)의 A. A. 오스묘르킨 교수의 회화반에서 졸업 작품 <조선의 어부들>이란 테마의 그림으로 수석을 차지, 금메달을 목에 걸. 졸업과 동시에 교수들의 추천으로 레핀미술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B. V. 이오간손 지도 교수 밑에서 박사 학업에 정진하게 됨. 같은 해 소련미술가연맹 레닌그라드 지부의 회원으로 발탁됨. 이후 1959 년을 제외하곤 同 전시회에 빠짐없이 출품함.
- 1950 년 (34 세) <휴양지의 레닌과 스탈린, 중대한 우호관계>라는 작품을 모스크바의 전 소련전시회에 출품함.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
- 1951 년 (35 세) <휴양지의 레닌과 스탈린, 중대한 우호관계>를 졸업작품으로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마침. 건축 예술부 데생과 조교수의 직책을 부여받아 본격적으로 교수 활동 시작. 소련 미술학 박사 학위증을 수여받음.
- 1952 년 (36 세) 둘째 아들 세르게이 태어남.
- 1953 년 (37 세) 부교수 승진과 함께 1953 년 6 월부터 소련 문화성(文化省)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교육성(教育省) 고문관으로 파견됨. 평양미술대학 학장 및 회화·데생·무대미술과 과장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평양미술대학의 교육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교수들을 지도·육성하는 데에도 힘씀.
- 1954 년 (38 세) 1954 년 9 월, 소련으로 돌아와 레핀미술대학에 복직. '레닌그라드 예술가'의 전시회와 '전 소련예술가동맹'에서 조직한 전시회에 북한에서 그린 작품들만으로 출품함. 이후 다른 전시회에도 북한에서 그린 데생, 인물화, 풍경화들로 전시장을 채우는데, 고국과 관련된 테마는 한동안 변월룡 작품의 근간으로 작용함. 소련 예술아카데미 후원 하에 대학의 유명 교수들로 구성된 『데생 회화 방법론』 서적 출판에 참여하며 자신의 글도 게재함.
- 1955 년 (39 세) 그동안의 작품 활동과 연구 성과로 레닌그라드 미술가협회로부터 화실을 배정받음. 북한 파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점을 인정받아 정부 당국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레닌그라드 당 수뇌부가 가로챈으로써 소수 민족의 설움을 톡톡히 맛봄. 8 월, 레닌그라드에서 '조선 해방 10 주년 경축 공연' 단장으로 온 죽마고우 정상진을 만나 고국으로 복귀 희망을 전했으나, 정상진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숙청이 됨으로써 복귀 희망이 무산됨.
- 1956 년 (40 세) 소련 대사 이상조를 만나 고국으로의 복귀 희망을 피력함. 그러나 그마저 숙청되는 바람에 또다시 희망이 사그라지면서 심한 좌절감을 맛봄. 하지만 북한의 지인들과의 편지 왕래는 계속되었음.

- 1957년 (41 세)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레닌그라드 미술가 작품전'에 약 300호 크기의 유화 작품 <평양의 해방 기념일> 출품.
- 1958년 (42 세) 딸 올라 태어남.
- 1959년 (43 세) 북한의 '해외동포 고국방문단'에 신청서를 냈지만, 변월룡만 유일하게 고국방문단 명단에서 제외됨.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가 자신의 숙청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됨. 그 충격에 따른 상심이 컸던지 이 해에는 어느 전시회에도 불참하는 등 일체의 활동을 접음.
- 1961년 (45 세) 자력으로 화실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함.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네덜란드를 두루 여행함. 자신의 숙청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해부터 1964년까지 연해주 지역을 방학 때마다 매년 다녀옴.
- 1963년 (47 세) 스웨덴을 방문하여 스톡홀름 예술아카데미의 교육방법에 관심을 가짐. 유일한 유화 <자화상>을 그림.
- 1964년 (48 세) 연해주를 다녀온 이 해부터 고국에 대한 미련과 상념을 접음.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작품에서 고국에 관한 그림을 찾아볼 수 없게 됨. 고향 <쉬코토보>를 동판화로 제작.
- 1966년 (50 세) 이 해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연해주 지역을 1980년대 초반까지 방학 때마다 다녀옴.
- 1970년 (54 세)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문.
- 1972년 (56 세) 레핀미술대학 학생들을 이끌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현장실습 스케치를 다녀옴.
- 1973년 (57 세) 유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완성하여 '1973년 레닌그라드 미술가 지역 전람회'에 출품함. 그림의 크기가 무려 360x531cm로서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 동안 그린 그림임. 현재 이 그림의 소재를 알지 못함.
- 1974년 (58 세) 다시 타슈켄트 다녀옴. 중앙아시아 여행에서 얻은 인상을 바탕으로 많은 동판화 작품을 시리즈로 제작함. 그해 가을 헝가리를 여행함.
- 1977년 (61 세) 마침내 레핀미술대학 정교수로 승진함.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 데 무려 24년이 걸린 셈이지만, 한편으로 이 승진은 이민족 화가로서의 냉대와 설움을 극복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음.
- 1981년 (65 세) 프랑스 여행.
- 1983년 (67 세) 프랑스와 포르투갈 여행.
- 1985년 (69 세) 건강 문제로 35년을 몸담은 레핀미술대학을 퇴직하고 연금생활자가 됨. 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작품 활동을 지속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그림에 열정을 불사름.
- 1990년 (74 세) 뇌졸중으로 1990년 5월 25일 작고. 미국 플로리다의 히벨 미술관(Hibel Museum of Art)에서 기획한 <골든브리지 Golden Bridge>展에 작품 출품. 이 전시회는 변월룡이 작고한 후에 열렸지만 처음으로 소련을 벗어나 서방 세계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기록됨. 그러나 유족에 따르면 출품작 5점 중 4점만 반환되고 1점 <자스민이 있는 정물>(1969, 캔버스에 유채, 58x78cm)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함.